



[하반기 산업 전망] 전기차에 ESS까지 '포스트 반도체' 2차전지 풀 충전 06



Economy

코스피	2058.78 (+6.75)	코스닥	666.90 (+9.10)
금리 (미국 3년)	1.44 (+0.01)	환율 (원/달러)	1181.60 (+1.10)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황창규 KT 회장, 허창수 GS 회장, 구광모 LG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김병원 농협 회장. /연합뉴스

“日규제, 세계경제에 악영향 특정국 의존 산업구조 깨야”

문 대통령, 30대 대기업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단행한 ‘우리나라 기업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산 10조원 이상 30개 기업-4개 경제단체(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대표 초청 긴급 간담회’ 때 이러한 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하길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양국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게 물론이다.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文 “日,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길
‘비상한 각오’로 대책 마련 할 것”
韓 기업 피해 최소화 적극 지원

부품·소재 국산화하는 중소기업
대기업 중심 협력 확대 당부도

이와 더불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은 “최근 ‘대한민국이 ‘약속(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논리를 통해 안보를 고려한 수출 관리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정공공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분명하니, 대북한에 대한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불화수소, 즉 에칭가스 대량 발주가 들어왔고, 그 에칭가스가 대한민국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병기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행선지는 북한”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발 수출규제 관련 다양한 대책도 공유했다.

문 대통령이 구상한 대책은 크게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인 대책이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국내생산의 확대-해외 원천기술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핵심부품-소재-장비의 국

산화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각각 언급했다.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줄길 바란다”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재계 인사로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정의선 현대차수석부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황각규 롯데주주 부회장·최정우 포스코 회장·김승연한화그룹 회장·허창수GS그룹 회장·김병원 농협 회장·정의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황창규 KT 회장·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구자열 LS그룹 회장·박현주미래에셋 회장·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김남구 한국투자금융 부회장·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장형진 영풍그룹 회장·김홍국 하림 회장·신창재 교보생명보험 회장·이원태금호아시아나그룹 부회장·백복인KT&G 사장·안병덕 코오롱 부회장·이우현 OCI 부회장·김범수 카카오 의장·정몽규 HDC 회장·정몽진 KCC그룹 회장 등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첨단기술 만나 식품 대혁신

미래 식품 조망 ‘FFTK’ 개최

더욱 풍요로워진 세상, 4차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이 일상이 된 미래의 삶 속에서 식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첨단 기술을 만난 먹거리의 혁신은 지구의 오염을 막고 질병을 예방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새로운 가치 창조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미래 식품 시장을 조망하고, 지속가능한식품의 혁신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열린다.

‘2019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 2019)’가 1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최된다.

메트로미디어 주최, 에이커스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 식품시장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국내외 주목받는 푸드 투자 전문가들을 초청, 미래 식품시장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향과 지속가능한 미래식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식물성 대체육과 식물로 만든 계란 등 지속가능한 식품혁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리콘밸리 푸드테크 투자 전문기업 피프티 이어스 창업자 세스 배넌 대표는 기초강연을 통해 식품 문제 이슈 등을 해결을 위한 글로벌 투자 트렌드와 식품시장 변화 방향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세션1에서는 ‘식품업계, 오픈 이



롯데리아가 출시한 식물성 패티 ‘리아미라 클 버거’

노베이션으로 미래성장동력 만들다’는 주제로 윤효정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플랫폼센터장이 ‘글로벌 식품시장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 강연하고, 신디 오우 듀폰 뉴트리션 & 바이오사이언스 규제 및 제품관리 아시아태평양 총괄본부장이 ‘미래 식품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의견을 전달한다.

세션2에서는 ‘푸드테크가 미래다’는 주제로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강연이 이어진다. 먼저 지능형 축산 유통 플랫폼 ‘미트박스’의 김기봉 글로벌네트웍스 대표이사가 강연하고 이어서 빅데이터 기반 간식 큐레이션 서비스 ‘스낵포’의 이웅희 창업자겸 대표가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인 패널토론에서는 윤효정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강연자들과 ‘지속가능한 미래식품을 위한 혁신전략’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가진다.

/이세경 기자 seilee@

메트로미디어 주최 ‘2019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
오늘 오후 2~5시,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현대건설, 사우디서 3.2조 수주 잭팟

아람코 발주 가스플랜트 공사
기술력·시공능력 인정 받아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조 2000억원 규모의 가스 플랜트 공사를 따냈다.

현대건설은 지난 9일(현지시간 기준) 사우디 아람코 다란 본청에서 27억

달러(약 3조2000억원) 규모의 ‘사우디 마잔(Marjan) 개발 프로그램(가스 플랜트) 패키지 6, 패키지 12’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두 공사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아람코(Aramco)가 발주한 플랜트공사로 사우디 동부담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250km에 위치한 마잔

(Marjan) 지역 해상 유전에서 생산되는 가스와 원유를 처리하기 위한 마잔(Marjan) 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패키지다.

패키지 6은 총 공사금액이 약 14억 8000만달러(약 1조7189억원) 규모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41개월이며 원유와 가스를 분리 처리하는 기존 공장에 일산 30만 배럴의 원유와 가스를 추가로 분리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공사다.

패키지 12는 공사금액이 12억5000만 달러(약 1조4570억원) 규모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41개월이며 2500 MMSCFD 가스를 처리하는 육상 플랜트에 전력과 용수 등 공장 운영에 필요한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간접시설 설치 공사다.

특히 이번 수주는 입찰 평가 과정에서 글로벌 유수 경쟁사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발주처인 아람코로부터 현대건설의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인정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아람코가 발주한 우쓰마니아 에탄 회수처리시설 공사의 기술, 품질, 공정 등 모든 면에서 발주처의 신뢰를 받아 이번 양질의 공사를 수주했다”며 “특히, 올해 카타르 국립박물관, 쿠웨이트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의 성공적 준공과 이번 수주 쾌거가 건설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peace@